

E대학 실습환자의 구강건강관리실태와 삶의 질에 대한 조사

김기은* · 최문실 · 한지형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Conditions of Patients' Oral Health and Their Quality of Life at 'E' College Dental Practice

Ki-Eun Kim[†], Moon-Sil Choi and Ji-Hyoung Ha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eongnam City, Gyeonggi-Do 461-713, Korea

ABSTRACT A questionnaire survey of patients for practical training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E college was conducted from August 28th 2006 to December 8th 2006. Before scaling,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questionnaires were fully explained and the pati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questions personally. The survey were conducted under their consent and 256 copi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The survey shows the patients' habit for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and their standards for the quality of life. 1. For gender, male occupied 117(45.7%) and female occupied 139(54.3%). For age, 158 of the patients were in their twenties(61.7%) and 60 of them were aged from 10 to 19(23.4%). 16 patients were aged from 40 to 49(6.3%) and 11 patients were aged from 30 to 39(4.3%) and the number of patients who are older than 50 was 11(4.3%). 2. For the mouth health care, according to gender, 37.6% of male answered that they had scaling and 46.8% of female patients answered that they had scaling experiences.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most patients answered they brushed their teeth twice a day. For 91.5% of male patients and 89.9% of female patients answered that they brushed their teeth after meals. Also, 41% of male patients and 53.2% of female patients use rolling method. For using mouth aids, 68.4% of male patients and 65.5% of female patients do not use any aids. 3. For brushing way, most teenagers and patients in their twenties use rolling method and patients older than thirty use vertical and horizontal method. The frequency of brushing shows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brush their teeth twice a day after meals. 4. The standard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der, under 'clear pronunciation' head, male patients mark 4.42 points and female patients mark 4.17 points. Under 'every day going out' head, male patients mark 4.53 points and female patients mark 4.29 points. Under 'maintenance of emotion' male patients mark 4.27 points and female patients mark 4.27 points. 5. The standard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ge, teenage patients show 4.28 points under 'having meals' and under 'clear pronunciation' head, patients in their forties mark 4.44 points. Under 'keeping teeth or denture clean' head, patients in their thirties mark 4.55 points. Patients in their fifties show the lowest grades in most questionnaires.

Key words Oral health, Quality of life

서 론

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구강건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전신건강을 위해서 구강건강은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구강질환에 속하는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은 지난 30년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의료보험 이래 다빈도 진료질환으로서 각각 3위와 10위를 차지하였다²⁾.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치아우식증 발생을 비교하는 12세 연령에서 우식경험치아수는 평균 3.25개³⁾로 이는 1972년 0.6개보다 5.5배나 증가한 것이고 다른 OECD국가들의 우식경험 치아평균수보다 2-3배 많은 것이다. 대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구강질환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자연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강질환의 경험은 연령과 구강건강관리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⁴⁾. 또한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에 관여하는 구강건강은 행복을 영위하는 필수요소⁵⁾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묻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⁶⁾의 2000년 조사에 의하면 다른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128-9676

Fax: 031-740-7352

E-mail: congcong2@empal.com

어떤 문제보다 구강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9세 19.8%, 40~49세 41.7%, 60세 이상은 64.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렇듯 구강건강이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활동이 수행되어야 하고, 구강보건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은 활성화된 상태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은 미비한 점이 있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은 지역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향상됨으로써 증진되므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관리실태와 구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고자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8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8일까지 E대학 치위생학과 치면세마 실습실에 방문한 환자(총 25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 문답지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본추출은 실습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와 구강관련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실태로는 구강 내 불편감에 대한 유무, 스케일링 경험 유무, 하루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 잇솔질 방법,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 최근 1년 동안 치과 방문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으며, 구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척도는 최 등⁶⁾의 연구에서 제시되어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식사하기, 명확한 발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Sex	Male	117(45.7)
	Female	139(54.3)
Age	Lowest through 19 age	60(23.4)
	20-29 age	158(61.7)
	30-39 age	11(4.3)
	40-49 age	16(6.3)
	50 age through highest	11(4.3)
		256(100.0)

음하기, 미소짓기, 가벼운 신체활동하기, 일상적 외출, 친구 등 만남 즐기기, 치아 깨끗이 하기, 잠자기, 휴식하기, 감정 상태 유지하기의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대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강관련 삶의 질 척도에 있어서는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1.5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17명(45.7%)이고, 여자가 139명(54.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158명(61.7%), 19세 이하가 60명(23.4%), 40-49세가 16명(6.3%), 30-39세가 11명(4.3%), 50세 이상이 11명(4.3%)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

1)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케일링 경험 유무에서 남자는 37.6%, 여자는 46.8%로 여

Table 2. The oral health care by sex Number of respondents(%)

		Male	Female	X ²	P
Experience of scaling	Yes	44(37.6)	65(46.8)	2.178	.140
	No	73(62.4)	74(53.2)		
Frequency of brushing teeth per day	1time	3(2.6)	5(3.6)	4.811	.439
	2times	68(58.1)	67(48.2)		
	3times	39(33.3)	59(42.4)		
	Over 4times	7(6.0)	8(5.8)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10(8.5)	14(10.1)	.174	.677
	After breakfast	107(91.5)	125(89.9)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13(11.1)	15(10.8)	5.494	.139
	Vertical and horizontal method	32(27.4)	34(24.5)		
	Fonds method	24(20.5)	16(11.5)		
	Rolling method	48(41.0)	74(53.2)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37(31.6)	47(33.8)	1.015	.602
	No	80(68.4)	91(65.5)		
Recently experience of visit dental clinic during one year	Yes	44(37.6)	64(46.0)	2.841	.242
	No	73(62.4)	75(54.0)		
Total		117(100.0)	139(100.0)		

*P < .05

자가 스케일링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잇솔질 횟수는 남자와 여자 모두 '2회'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3회'가 42.4%, 남자는 33.3%로 여자가 전반적으로 잇솔질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에 있어서는 '식사 후'가 남자는 91.5%, 여자는 89.9%로 나타나 대부분 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고 있었으며, 잇솔질 방법에서는 회전법으로 하는 경우는 남자 41.0%, 여자 53.2%에 불과하였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는 '있다'가 남자 31.6%, 여자 33.8%로 여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치과방문경험 유무는 '없다'가 남자 62.4%, 여자 54.0%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2)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는 Table 3과 같다.

스케일링 경험 유무는 30대 72.7%, 40대 68.8%, 50대

63.6%로 30대의 스케일링 경험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잇솔질 횟수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2회', '3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시기도 모든 연령에서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10대와 20대의 경우 '회전법'(5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이상의 경우 '위아래'(45.5%)로 답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회전법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는 30대(54.5%)와 40대(62.5%)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1년 동안 치과방문경험 유무의 경우 50대가 '방문경험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령층은 치과방문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비교

1)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질에

Table 3. The oral health care by age Number of respondents(%)

		-19 age	20-29 age	30-39 age	40-49 age	50-age	X ²	P
Experience of scaling	Yes	13 (21.7)	70 (44.3)	8 (72.7)	11 (68.8)	7 (63.6)	21.491	.000*
	No	47 (78.3)	88 (55.7)	3 (27.3)	5 (31.3)	4 (36.4)		
Frequency of brushing teeth per day	One time	4 (6.7)	3 (1.9)	0 (0)	1 (6.3)	0 (0)	11.089	.521
	Two times	30 (50.0)	84 (53.2)	5 (45.5)	11 (68.8)	5 (45.5)		
	Three times	24 (40.0)	61 (38.6)	4 (36.4)	4 (25.0)	5 (45.5)		
	Over 4times	2 (3.3)	10 (6.3)	2 (18.2)	0 (0)	1 (9.1)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10 (16.7)	12 (7.6)	0 (0)	2 (12.5)	0 (0)	6.804	.147
	After breakfast	50 (83.3)	146 (92.4)	11 (100.0)	14 (87.5)	11 (100.0)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9 (15.0)	12 (7.6)	2 (18.2)	2 (12.5)	3 (27.3)	23.763	.022*
	Vertical and horizontal method	15 (25.0)	34 (21.5)	5 (45.5)	7 (43.8)	5 (45.5)		
	Fonds method	14 (23.3)	25 (15.8)	0 (0)	1 (6.3)	0 (0)		
	Rolling method	22 (36.7)	87 (55.1)	4 (36.4)	6 (37.5)	3 (27.3)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12 (20.0)	53 (33.5)	6 (54.5)	10 (62.5)	3 (27.3)	13.412	.009*
	No	48 (80.0)	105 (66.5)	5 (45.5)	6 (37.5)	8 (72.7)		
Recently experience of visit dental clinic during one year	Yes	19 (31.7)	75 (47.5)	4 (36.4)	4 (25.0)	6 (54.5)	7.309	.120
	No	41 (68.3)	83 (52.5)	7 (63.6)	12 (75.0)	5 (45.5)		
Total		60 (100.0)	158 (100.0)	11 (100.0)	16 (100.0)	11 (100.0)		

P < .05

Table 4. Quality of life by sex

	Male (N= 117)	Female (N= 139)	T	P
Having meals	4.14(± .982)	4.02(± .921)	.841	.401
Clear pronunciation	4.42(± .921)	4.17(± .999)	2.034	.043*
Smile, display your teeth	4.21(±1.030)	4.11(±1.019)	.757	.450
Light movement (housework, cleaning, a walk)	4.51(± .795)	4.37(± .879)	1.314	.190
Every day going out (shopping, meeting)	4.53(± .847)	4.29(± .966)	2.073	.039*
Have a meeting your among friends and neighborhood	4.50(± .857)	4.33(± .857)	1.473	.142
Keeping teeth or denture clean	4.38(± .917)	4.26(± .943)	1.002	.317
Sleeping	4.38(± .964)	4.29(± .996)	.728	.467
Take a rest(watching TV)	4.47(± .906)	4.33(± .958)	1.187	.237
Maintenance of emotion	4.50(± .827)	4.27(± .990)	2.022	.044*

P < .05

Table 5. Quality of life by age

	~19 age (N = 60)	20~29 age (N = 158)	30~39 age (N = 11)	40~49 age (N = 16)	50~age (N=11)	Total	F	P
Having meals	4.28 (.976)	4.05 (1.133)	3.82 (1.079)	4.00 (1.033)	3.64 (1.120)	4.07 (1.091)	1.186	.318
Clear pronunciation	4.35 (.954)	4.27 (.995)	4.36 (.927)	4.44 (.629)	3.82 (1.168)	4.29 (.971)	.825	.510
Smile, display your teeth	4.15 (1.022)	4.15 (1.060)	4.36 (.924)	4.25 (.683)	3.82 (1.079)	4.15 (1.023)	.443	.777
Light movement (housework, cleaning, a walk)	4.50 (.770)	4.47 (.835)	4.18 (1.168)	4.44 (.727)	3.91 (1.044)	4.44 (.842)	1.482	.208
Every day going out (shopping, meeting)	4.43 (.909)	4.46 (.879)	4.18 (1.168)	4.25 (.931)	3.82 (1.168)	4.40 (.919)	1.576	.181
Have a meeting your among friends and neighborhood	4.45 (.852)	4.45 (.885)	4.27 (1.009)	4.31 (.793)	3.82 (1.168)	4.41 (.894)	1.433	.223
Keeping teeth or denture clean	4.33 (.896)	4.32 (.958)	4.55 (.820)	4.31 (.793)	3.91 (1.044)	4.31 (.931)	.693	.597
Sleeping	4.32 (1.000)	4.37 (.973)	4.64 (.809)	4.31 (.793)	3.73 (1.272)	4.34 (.980)	1.374	.243
Take a rest (watching TV)	4.38 (.940)	4.42 (.946)	4.64 (.809)	4.31 (.793)	3.91 (1.044)	4.39 (.935)	.996	.410
Maintenance of emotion	4.45 (.891)	4.39 (.916)	4.36 (1.120)	4.25 (.775)	3.82 (1.168)	4.37 (.924)	1.187	.317

대한 문항은 리커트 척도형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조사하였다.

'명확한 발음하기'는 남자 4.42점, 여자 4.17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발음에 있어 장애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상적 외출'은 남자 4.53점, 여자 4.29점으로, '감정 상태 유지하기'는 남자 4.50점, 여자 4.27점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비교는 Table 5와 같다. '식사하기'는 10대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확한 발음하기'는 40대가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아 혹은 틀니 깨끗이 하기'는 30대가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항목별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고 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은 곧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구강건강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구강건강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요소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과 같이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예방함으로써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건강증진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초조사가 요구되어 진다⁷⁾.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실태와 삶의 질의 지표를 조사함으로써 현 실태를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습관 중 스케일링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잇솔질 횟수의 경우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등⁸⁾와 박⁹⁾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구강건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일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¹⁰⁾의 연구에서 일일 잇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이

많았으며 이 등⁸⁾의 연구에서는 2.8회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식사 후에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잇솔질 시기는 '식사 후'에 한다가 남자 91.5%, 여자 89.9%로 높게 나타났지만 간식 섭취나 취침 등 보다 세분화된 시기조사를 못한 한계점을 차후에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잇솔질 방법은 회전법 사용이 남자와 여자 모두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박 등⁹⁾의 연구에서 횡마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강¹¹⁾의 연구에서 '옆으로 닦는다'가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잇솔질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¹²⁾이므로 정확한 잇솔질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잇솔질 방법과 필요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잇솔질만으로 부족한 치간 청결이나 치은 맛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은 남자 31.6%, 여자 33.8%로 미비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최근 1년 동안 치과방문 경험 유무의 경우 여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¹³⁾연구와 같은 결과로 구강건강에 대해 남자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구강건강관리 및 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김 등¹⁴⁾의 연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았으며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결손치와 사랑니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조¹⁵⁾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발생에 있어서 구강검진 부족과 스케일링 무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잇솔질 방법 및 시기가 올바르게 실천된다면 구강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치료처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에서는 연령에 따라 스케일링 경험 유무, 잇솔질 방법,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위아래'의 잇솔질 방법의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 등¹⁶⁾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는 등 올바른 잇솔질 방법 실천이 낮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구강위생

보조용품사용 유무의 경우 30대와 40대의 사용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그룹일수록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김¹⁷⁾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30대 이상의 스케일링 경험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김¹⁸⁾의 연구에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로 '치과에서 권장해서'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실습 시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스케일링 후의 구강상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보조용품의 필요성과 사용법, 사용 후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환자로 하여금 동기유발 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강건강이 다소 악화된다 하더라도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구강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연관짓지 않아 항목별 점수를 후하게 평가한 것이라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비교는 5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정¹⁹⁾의 연구에서 입 안의 문제 때문에 최근 6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낀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48%가 음식섭취에 어려움을 경험했고, 25%는 발음에 어려움을, 19%는 잇솔질하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구강건강의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구강상태는 저작에 불편을 주어 식사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박탈하고, 발음과 외모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져와 사회적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실습대상 환자로 전신질환자는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고연령층 환자가 적으며, 실습자가 20대 초반이다 보니 대부분 친구, 친척 등 왕래가 편한 사람을 환자로 선택하고 있어 연령별로 편중된 경향을 보여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 조사하여 분석한다면 더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학교구강보건사업이 국가 정책화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에 비해, 시간적 여유 없이 바쁘게 생활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2006년 8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8일까지 E대학 치위생학과 치면세마 실습실에 방문한 환자(총 256명)를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시작하기전 사전 동의를 받고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와 구강관련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남자가 117명(45.7%)이고, 여자가 139명(54.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158명(61.7%), 10~19세가 60명(23.4%), 40~49세가 16명(6.3%), 30~39세가 11명(4.3%), 50세 이상이 11명(4.3%)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구강관리 습관은 스케일링 경험 유무에서 '있다'가 남자 37.6%, 여자 46.8%,로 나타났고, 잇솔질 횟수는 남자와 여자 모두 '2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에서는 '식사 후'가 남자는 91.5%, 여자는 89.9%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은 회전법이 남자 41.0%, 여자 53.2%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위생용품 사용 유무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남자 68.4%, 여자 65.5%로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는 잇솔질 방법에서 10대와 20대는 회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30대 이상은 '위 아래'로 닦는 종마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모든 연령에서 '2회'가 가장 많았으며, 잇솔질 시기도 모든 연령에서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에서는 '명확한 발음하기'는 남자 4.42점, 여자 4.17점, '일상적외출'은 남자 4.53점, 여자 4.29점으로 나타났고, '감정 상태 유지하기'는 남자 4.27점, 여자 4.27점으로 나타났다.
5.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에서는 '식사하기'는 10대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확한 발음하기'는 40대가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아 혹은 틀니 깨끗이 하기'는 30대가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참고문헌

1. 이항림: 구강진료기관 이용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양귀혜: 서울일부지역 성인들의 구강건강과 그 영향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200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3.
4.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 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17(1): 1-12, 1993.
5. 김혜진: 산업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최정수, 정세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7. 김은숙: 인지한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증진행위 및 일상생활 구강건강지도(DIDL)관계분석.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4(2): 146-147, 2000.
8. 이태연, 나수정, 김진범: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1(2): 279-300, 1997.
9. 박향숙, 김진수, 최부근: S대학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치위생과학회지 6(2): 127-131, 2006.
10. 조은별: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위.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강현경: 치주질환의 유지관리 효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2. 김미정: 서비스산업근로자의 구강보건행태(주관적 증상 및 구강병 발생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김혜영: 한국인의 치과진료서비스 이용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4. 김혜진, 배수명, 최옥선: 구미시 일부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5(4): 205-209, 2005.
15. 조성숙: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6. 성정희, 박명숙: 구강건강행태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공무원 및

- 사립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치위생과학회지 2(1): 39-45, 2002.
17. 김은주: 구강건강 신념과 구강보건 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8.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2): 95-103, 2002.
 19. 정세환: 노인구강건강과 구강보건학계의 역할. 대한 구강보건학회 제2차 학술집담회자료집, 2005.

(Received August 27, 2007; Accepted September 12, 2007)

